



## 자유한국당, 선거제·검찰개혁이 그렇게 두려운가?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불법점거가 ‘반독재 투쟁’이라는 황교안  
국민들, “한국당이 ‘헌법수호, 독재타도’ 외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자유한국당은 코미디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 밥그릇까지 뺏지 마라!!!”

“부끄럽지 않나? 보는 내가 손발이 오그라드네...자기를 이익과 안위만 생각하니 부끄러운 줄이나 알겠나?”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의 입에서 ‘헌법수호, 독재타도...’란 말을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 그 말하다가 잡혀가 고문당하고,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반발한 한국당이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며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을 시작으로 현 정부를 규탄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했다. 장외 투쟁을 통해 선명한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확산하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이지만 시종일관 강성 발언과 국정



의 발목만 잡는 모습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광주를 방문한 그에게 광주시민들은 ‘환영’대신 ‘물벼락’을 안겼다.

그럼에도 그는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 꿇는 날까지 투쟁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의식에 피를 토한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폭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들어간다”며 “선거제, 공수처법, 민생 삼위일체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 트랙 지정이 ‘좌파독재 음모’라며 회의장을 나을 동안 봉쇄하며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발로 차버렸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강변했다. ‘막말 전문’, ‘조작 전문’, ‘색깔론 전문’ 정당 다운 기가 막힌 자기 합리화다.

국민들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좌파독재 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며 회의장을 틀어막고, 의안과 집기를 부수고 법안을 탈취·파손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그런데도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사발의식을 거행하며 장단을 맞췄고, 국토 순회 투쟁에 앞서 경부선·호남선 투어에 이어 주말에는 광화문 집회를 또 열었다.

한국당의 독재타도 투쟁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기득권 유지 투쟁일 뿐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와 검찰개혁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여론몰이의 대상으로 기망하는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 권오봉 여수시장·정현복 광양시장·박우량 신안군수 복당

정중순 장흥군수, 당자위 보류결정에 복당 신청 철회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제 96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당원자격심사위에서 복당을 허용한 여수시장과 정 광양시장에 대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 시장은 2010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광양시장에 재선됐다.

이들에 대한 복당 허용으로 전남지역 우리 당 소

속 기초단체장은 전체 22명 가운데 17명으로 늘었다.

앞서 중앙당 당무위원회는 지난해 4월 13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을 신청한 박우량 군수에 대해 지난 3월 8일 복당 허용을 의결한 바 있다.

박 군수는 탈당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복당할 수 없지만, 중앙당 당원자위 심의를 거쳐 당 무위원회에서 달리 의결할 때는 복당이 가능하다는 규정(당규 제2호, 11조 3항)에 따라 박 군수의 복당을 허용했다.

##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희생과 봉사”...설 훈 최고위원

도당 ‘선출직 및 핵심당원 권역별 교육연수’ 실시  
설훈·박광온 최고위원, 신정훈 지역위원장 특강



전남도당은 지난 3월 29일 무안 남악주민센터에서 내년 4·15총선 승리와 핵심당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및 핵심당원 교육’(서부권)을 실시했다. <사진> 이어 4월 5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중부권)에 이어 12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동부권)에서 권역별 연수가 이어졌다.

서부권 교육연수에는 목포(지역위원장 우기종)와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장 이개호), 영암·무안·신안지역 위원회(지역위원장 서삼석) 등 전남 서부권 3개 지역위원회 소속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핵심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와 핵심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뤄내고, 더불어 함께 하는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청 강사로 나선 설 훈 최고위원은 ‘21대 총선 승리를 넘어 지속가능한 중심 정당을 위하여’란 특강을 통해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희생’과 ‘봉사’다. 국민에게 무한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없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민주화와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인 민주당의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5일 열린 중부권 교육에는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과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 강인규 나주시장, 이승욱 강진군수,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핵심당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 신정훈 지역위원장이 ‘총선승리와 호남’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끝으로 지난달 12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동부권 교육에는 박광온 최고위원,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이용재 도의회의장, 허 석 순천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광역·기초의원 등 당 소속 동부권 선출직 공직자와 당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과 전남·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한전공대, 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등 전남 현안 지원 약속

### 4.12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달 12일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를 방문, 전라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서삼석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오

전 나주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남도 김영록 지사와 도 실·국장, 당 소속 시장·군수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남해안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한전공대 설립 등 전남 현안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 사업인 남해안신 성장관광벨트 1단계 사업과 수산식품 수출 단지 조성에 대해 “앞으로 전남 신성장엔 큰 축이 사업”이라며 “이를 잘 살려 국가 신성장축 육성사업에 전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해남·영암은 5월(지정) 만기가 도래하는데 정부와 협의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 “저도 교육부 장관을 해봤지만 대학이 특성화되지 않으면 오래 발전하지 못한다”며 “전남의 숙원사업인 한전공대가 에너지 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잘 발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전이 먼저 학교를 만

들어놓고 정부가 지원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간편하고 진도가 빨리 나갈 것”이라며 “정부 측에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전남이 안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들 중 큰 관심사는 주요 농작물 최저가격 보장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2019년 쌀값”이라며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조속히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어 “생활형 SOC사업의 하나인 ‘어촌 뉴딜 300’사업이 신안군과 같이 해안선이 많은 완도, 진도, 장흥, 강진, 해남, 고흥 쪽에 많이 배정되었으면 한다. 신안의 경우 천사대교 개통만으로 섬 주민 교통난 해소 역부족이다”며 “혁신공항 건설에 협조요청 드린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 전남 지역 발전에 획을 긋는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전남 사업이 대거 반영되었고, 예타 면제로 2조9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이끌었다”며 글로벌 에너지 연관사업, 바이오 메디컬 사업,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허 석 순천시장이 잡월드(Job World) 조기 건설 지원을 요청한 것을 비롯, 시장·군수들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진입도로 개설 등 각 시·군별로 40여 건의 현안사업 국비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박광온·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 서삼석 도당위원장, 우기종·주철현·정기명·서갑원·신정훈·이용재·김승남·윤재갑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전남 새100년위원회 출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공동위원장에 서삼석 도당위원장·김영록 전남지사 추대  
출범식 후 '선출직 및 핵심당원 교육'(동부권)···박광온 최고위원 특강



전남도당은 지난달 12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남 새100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출범식에는 박광온 최고위원, 서삼

석 도당위원장과 주철현(여수갑)·정기명(여수을)·이용재(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장, 허 석 순천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광역·기초의원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원 등 400여 명이 참

석했다. 새100년위는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고, 3·1운동과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 및 범국민운동을 당원과 당 소

속 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100년 통일한국 슬로건 공모, 국토순례와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삼석 공동위원장은 “새100년위 발족을 계기로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통일운동을 본격화하고, 지방정부와 당원이 함께 하는 기념사업을 활발히 하여 2020 총선 필승의 토대를 구축해나가자”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교체와 지난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냈다’며 오늘 출범한 새100년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출범식을 마치고 2020 총선 승리와 핵심당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및 핵심당원 교육'(동부권)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박광온 최고위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과 전남·광주의 새로운 100년'에 대해, 인사이트컨설팅 양성길 대표가 '나를 알리는 SNS 선거전략'에 대해 각각 특강을 했다.

##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총선 승리' 다짐하며 공식 출범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지난 3월 6일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당원의 지위향상과 권리 보장을 통한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총선승리, 여성당원의 힘으로!'란 슬로건을 내건 이날 발대식에는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백혜련 당 전국여성위원장, 박현숙 도당 여성위원장, 지역위원장, 선출직 공직자, 여성당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박광온·남인순 최고위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영길 동북아 평화협력특위 위원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여성위원회 출범을 축하했다.

서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당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내년 총

선에서 승리를 이뤄내고, 더불어 함께하는 대한민국과 한반도 통일의 꿈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당원을 대표해 안명희·문점숙·조미라 여성부위원장이 '여성당원의 다짐'결의문을 낭독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또 여성 이그나이트 발표회 최우수상을 받은 이춘봉 당원의 '이주 여성당원의 활동 사례'발표 및 공로패와 감사패 시상도 실시됐다.

여성당원들은 이날 '열린 영상제안'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현숙 도당 여성위원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여성당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고 여성당원의 지위향상,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당-전남도 첫 당정협의회···도청 서재필실

전남도, 당·정에 한전공대 지원 등 11건 행·재정적 지원 요청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지난 2월 28일 전남도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전공대 글로벌 에너지 특화대학 육성지원, 완도-고흥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등 전남도가 건의한 11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당은 이날 오후 도청 서재필실(9층)에서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우기종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병호 행정부지사, 윤병태 정무부지사와 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전남도 고광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책건의를 통해 한전공대가 오는 2022년 3월 정상 개교하고 세계적 수준의 특화대학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재정 및 부지, 국가 대형 연구시설 설립(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 등의 설립지원위원회 검토

과제에 대한 당정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자체 자율기획형 R&D 지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 지원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도당에서는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나주 산포 하수관거 정비 및 화순 국가면역치료연구원 설립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것을 비롯, 모두 44건의 민생현안을 발굴해 전남도에 지원을 요청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전남도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은 물론 각 시군의 민생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발 가짜뉴스

# 팩트체크

“선거제 개편이 의원수 증가? 거짓말 좀 엉간이 허소잉!”

자유한국당이 최근 ‘팩트 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에 반발해 4박4일 간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으로 부족해 거리 투쟁에 나섰다. 또 여야 4당이 마치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합의한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는 현수막을 대량 게시했다.

한 마디로 국민을 속이고 유권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속임수이자 가짜뉴스이다.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으로, 5·18국가유공자를 괴물로 매도하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비하하고,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음주’를 했다고 거짓비방을 했다.

이에 분노해 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자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북한을 끌어들이 북한소행이란 거짓말 대행진을 이어갔다. 급기야 김무성 의원은 지난 3일 “청와대를 불지르겠다”는 국가전복 및 내란 유도 선동발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조작 전문’, ‘색깔론 전문’, ‘막말 전문’ 한국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짓선동이자 전형적인 가짜뉴스들이다. 자유한국당 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한국당의 거짓말 선동정치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다” 현수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는 지난 3월 17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한국당을 포함한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검토’, ‘의원정수 확대 논의’ 등을 담은 합의를 내놨지만 국민 다수가 의원정수 확대를 원치 않아 특위 내에서도 의원정수 유지 의견이 힘을 얻었다.

여야 5당 합의 3개월 뒤인 지난 3월 10일 한국당은 돌연 ‘연동형 비례제 반대’, ‘비례대표 폐지’ 주장을 하며 합의를 깼다. 합의 파기 뿐 아니라 헌법의 비례대표제 조항까지 무시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여야 4당의 합의를 비판하며 해당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다.

이에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가짜 현수막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정개특위 소속 여야 4당 간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24명을 지난 3월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여야 4당은 의원정수 증원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 팩트체크 결과 → 가짜뉴스(0)

### “5·18은 북한군 소행”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의 5.18 공청회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등이 5.18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일삼은 이후 5.18 북한군 개입설이 확산되고 있다.

지씨는 과거부터 ‘북한군 600명 침투설’을 극우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 유포시키고 대표적인 인물. 하지만 그는 2013년 11월 14일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자 명예 훼손혐의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북한군 개입설은 완전히 날조된 주장으로 판명됐다.

그 이후로도 그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이 북한군의 모습과 닮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라고 지목하거나,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을 해오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북한군 개입설’을 종식시킬 증거 자료는 미국 정부자료에서도 이미 확인됐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2017년 1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5.18 전후 작성돼 기밀해제된 미국 CIA의 문서 두 건을 공개했다. CIA 홈페이지에서 원문도 확인할 수 있는 이들 자료는 북한 특수군 600명의 광주 투입설,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의 위장침투설 등이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팩트체크 결과 → 가짜뉴스(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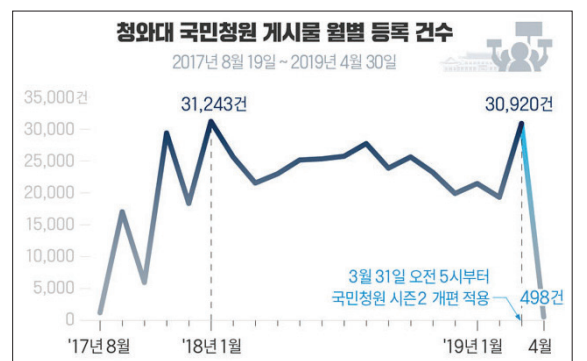
### 문재인 대통령 강원도 ‘산불음주’

자유한국당의 거짓말 퍼레이드는 강원도 산불로 이어졌다. 신의 한수, 진성호 방송 등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사 사주들과 술을 마시느라 강원도 산불 당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문대통령의 음주 의혹을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시켰고, “문 대통령이 술을 마셔서 산불진화 지시가 늦어졌다. 보톡스를 맞다가 산불 진화 지시가 지연됐다”는 악의적인 뉴스들이 온라인에 크게 유포됐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가짜뉴스로 판명났다. 문 대통령은 신문날 축하연은 화재발생 시간보다 30분 앞선 오후 6시30분께 끝났고, 문 대통령도 그 시간 행사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 팩트체크 결과 → 가짜뉴스(0)



###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00만 명 돌파는 청와대와 북한 소행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이 지난 7일 180만 명을 넘겼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매우 조작 가능성이 높다”며 조작설을 제기한데 이어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YTN라디오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세력이 기획·진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온라인 좌파 세력이 아이디 무한 생성기를 이용해 무한 접속이 가능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작에 무방비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이 0.17%가 나왔고, 3월 한 달에는 3.55%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3월에)은 베트남 언론에서 장자연 사건 기사를 쓰면서 하단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링크하면서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며 베트남을 통한 정당 해산 청원 조작설을 반박했다.

베트남 조작설을 주장했던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트래픽 데이터를 검증하는 취지로 요구한 정보공개가 타 정당의 정치인에게 인용돼 ‘청원에 동의한 100만 명 중 14만명이 베트남’ 같은 관련 없는 이야기로 변질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해명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언론이 북한 배후설 근거에 대해 묻자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달 18일 한국당 해체를 주장했고, 나흘 뒤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의 한국당 해체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이미 작년에도 2차례나 같은 성명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북한 배후설도 전혀 논리가 맞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였다.

☑ 팩트체크 결과 → 가짜뉴스(0)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2017-2019

## 정의로운 전진

#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4·27정상회담 1주년 기념 문화공연 영상메시지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의 소회는 “정의로운 전진을 위해 적폐 청산은 계속돼야 한다”는 다짐과 일맥상통한다.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은 ‘나라다운 나라’였고, 촛불정신은 ‘민주주의의 복원, 복지국가와 공정사회 건설, 한반도평화의 실현’이었다. 그러한 소망이 모여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면서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국민정당으로 발전했다.

지난 2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해 쉽 없이 전진해 왔듯이 집권 3년차를 맞아도 적폐청산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도민·당원과 함께 축하하며, 쉽 없는 개혁과 적폐청산의 길에 함께 나설 것을 다짐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 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민생을 팽개친 ‘민생절단’ 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외치는 독재 정당의 후예들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개혁과 적폐청산의 여정이 계속돼야 할 이유다.



### 내 삶을 바꾼 2년 문재인 정부 2년

#### 내 삶을 바꾼 2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교육

##### #1 아동·청소년

### 아동수당 확대



“사실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도 끝도 없죠”  
천안시 | 42세 | 주부

정책 내용 아이 양육지원을 위해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  
[대상]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  
(4월부터, 1~3월분 소급)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9월부터)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아동수당 확대

아이 양육지원을 위해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하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내 삶을 바꾼 2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

##### #2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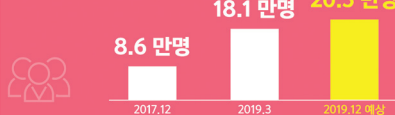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불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세종시 | 29세 | 사무직

정책 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 방지, 임금격차 등 차별 해소

정규직 전환 실적·목표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 방지, 임금격차 등 차별을 해소합니다. 2017년은 8.6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9년에는 20.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내 삶을 바꾼 2년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토익도 자격증 공부도 맘 편히  
교통비까지 지원 받았어요!”  
성남시 | 26세 | 취업준비생

정책 내용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비용 지원 월 50만원X6개월  
[대상] 만 18세~34세, 중위소득 120%이하, 졸업 후 미취업자

'19년 3월까지 약 4만 8천명 신청

연내 8만명 대상 1,582억 지원 계획

문의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만 18세~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졸업 후 미취업자가 대상입니다. 2019년 3월까지 약 4만 8천명이 신청했으며, 연내 8만명을 대상으로 158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남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시급하다”...서삼석 위원장

## 해양쓰레기 관리 주체 이원화...국가 주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절실

최근 전남 해안지역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책임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만7천15t이었던 수거량이 지난해 8만7천273t(잡정치)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자체별 수거량 편차도 심해 11개 지자체 중 전남이 37%가 가장 많았다. 경남 14%, 제주 14%, 충남 13% 순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형태에 따라 수거의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는데, 지자체가 책임지는 해안 쓰레기는 전체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66%를 차지했다.

서 위원장은 “수거 주체 이원화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잦다. 악취, 미관저해, 바다생물 서식지 파괴 등 다양한 환경적 문제도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거된 쓰레기 대부분은 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 처리하는 실정”이라며 “최근 미세먼지와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복구비용을 예상할 때, 자원 재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발생 원인이나 경로예측이 어려워 수거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환경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국가주도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 수거, 처리, 재활용 문제 등 관련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삼석 도당위원장, ‘농산물 산지폐기 악순환’ 해법 마련 정책 토론회 열띤 토론

광주CBS·CMB 공동주최(4.9일)...광주CMB 공개홀 녹화



농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광주CBS와 CMB광주방송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농작물 산지폐기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 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 전남겨울대과생산자협회(준) 박길성 회장 등 농업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산지폐기만큼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다”며 “산지폐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작물 최저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고 정부와 생산자, 생산자와 농협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산지폐기는 농작물 재배 면적보다는 날씨에 큰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산지폐기 최소화를 위해 생산과정에서부터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옥 연구위원은 “주 52시간제 도입과 수입량 증가 등으로 국내 농산물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산지 폐기되는 농작물의 양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생산단계부터 수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길성 회장은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지만 2년 연속 시장출하도 못해보고 산지폐기를 했던 적은 없었다. 반복되는 산지폐기는 농촌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삼석 도당위원장, 천사대교 개통식 참석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지난달 4일 신안군 압해도~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 개통식에 참석해 “전라도 정도 1천년, 신안 50년의 역사에 획기적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개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삼석 도당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지원 의원(민평당), 박우량 신안군수와 지역 주민 등 500여 명

이 참여했다.

천사대교는 1,008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을 상징하는 교량이자 서남권의 랜드마크로서 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섬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사대교는 10.8km의 길이로 인천대교, 광안대교, 서해대교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긴 교량으로 8년 만에 완공됐다.



## 면세유 카드 수수료 폐지법안 발의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달 2일 농어민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입업인 등에게 면세유 취급 수수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 위원장은 “수수료는 면세유 공급가격의 2%가 징수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인상할수록 수수료도 오른다”면서 “농어민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목포지역위-목포시 당정협의회...상그리아비치호텔

## 목포시, 북항 배후단지 진입로, 국제 카페리 부두 국비 지원 요청



목포지역위원회(위원장 우기종)는 지난 2월 21일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목포시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기종 위원장, 김종식 목포시장, 김휴환 시의장 및 당 소속 도·시의원과 정순주 부시장을 비롯

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내년 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우기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목포시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주문해 그동안

보고식 당정협의회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주문했다.

목포시는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국제 카페리부두 건설 사업 등에 대해 우선적인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회의는 제 1회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2년 전국체전 준비, 맛의 도시목포 선포식, 해상케이블카 개통 준비, 국제슬로시티 지정 추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숙박업소 간판정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시범 사업 등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사업보고와 도시의원들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종식 시장은 “예타면제 사업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기종 위원장은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도 추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국비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 우기종 위원장, 김홍일 전 의원 유해 안장식 참여



우기종 목포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유해 안장식에 참여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사진>

고 김 전 의원의 유해는 이날 오후 3시께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에 도착해 안장되었다.

우 위원장은 목포지역위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고문을 받은 후 지병을 앓아온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택 안방에서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자택 관리인이 발견, 신고했다.

김 전 의원은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목포·신안갑에서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16, 17대까지 3선 의원을 지냈다.

# 우기종 위원장, 세월호 5주기 추모

우기종 목포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세월호 5주기를 나흘 앞두고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열린 추모음악회에 참석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사진>

이번 추모음악회에는 전남 20개 시·군 학생들로 구성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단원 1천여명과 4·16 합창단이 함께 세월호 추모곡인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등을 노래하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우 위원장은 전남문화예술협회 명예이사장 자격으로 리허설에도 참석해 단원들을 격려했다.

# 목포지역위, 목포시의회 민생예산 삭감 ‘유감’표명

## 우기종 위원장, “향후 자정결의 위반 시 엄중한 책임 묻겠다”

목포지역위원회(위원장 우기종)는 목포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남도 지원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목포지역위는 지난달 9일 ‘목포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목포시의회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3월 목포시가 상정한 추경안 심의에서 도시사 특별조정교부금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1,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은 방법 CC-TV설치와 어린이공원 시설보강, 통학버스 승강장·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투광 설치 등 시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사업들이었다.

우기종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질책을 엄중한 책임감으로 받아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6·13지방선거 당선자 자정결의대회에서 다짐했던 내용과 어긋나는 일이 향후 발생되면 엄격한 책임을 즉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 여수갑·을지역위 대의원대회 및 합동 개편대회 주철현(갑)·정기명(을) 지역위원장 취임...

## 31일 여수시민회관

여수갑(위원장 주철현)과 여수을지역위원회(위원장 정기명)가 주말을 맞아 잇따라 대의원대회 및 합동 개편대회를 열고 새롭게 출범했다.

여수갑·을지역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여수시민회관·여수보건소에서 각각 대의원대회를 치른 뒤 여수시민회관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합동 개편대회 및 출정식을 개최했다.

대학생 서포터즈의 축하공연에 이어 서완석 여수시의회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합동 출정식은 이형석 최고위원, 서삼석 도당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의 축사

에 이어 정청래 전 의원이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의 역할'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수시민과 당원 동지들의 단합된 힘을 보니 2020 총선 승리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주철현·위원장에 대한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계속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박광온 최고위원 등은 영상축사를 통해 주철현·정기명 여수갑·을지역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총선 승리를 이뤄내자"고 요청했다.

주철현, 정기명 위원장은 차

례로 단상에 올라 "지난 총선에서 빼앗긴 여수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여수가 똘똘 뭉쳐 힘을 합치자"며 "여수가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총선 승리의 출발점이 되자"고 역설했다.

주철현 위원장은 여수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을 거쳐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역임했다.

정기명 위원장은 여수고·전남대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수박람회사후활용추진위 공동위원장,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전남도당선대위 여수을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여수갑·을지역위, '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특위' '구성'

## 특위 위원장에 문갑태 시의원 임명...중앙당 차원 대책마련 건의

여수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의장 주철현)는 최근 문제가 된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조작 규명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여수갑·을지역위원회는 이날 오전 주철현 여수갑지역위원장 사무실에서 주철현(갑)·정기명(을) 지역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시·도의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는 위원장에 환경문제 전문가인 문갑태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역차원 대응을 위해 시민대책본부 구성 제안 등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여수산단 사건은 범 국민적 관심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여수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당 내에 여수산단특별법 제정 특위, 여수세계박람회장활성화특위를 각각 소속 시·도의원

과 당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주철현 협의회 의장은 "이번 사건은 수년 동안 대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것이다"며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일에 당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 여수갑·을지역위

### 첫 동정책협의회 개최

여수 갑·을지역위원회가 첫 공동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지난달 첫 주말인 6일 주철현 갑지역위원장의 법률사무소에서 회의를 통해 박람회장 내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추진을 위해 내년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 갑·을 지역위는 올해 하반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수시가 권오봉 시장 취임 이후 박람회 재단에 요청한 '박람회장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매각공고'는 지역 정서와 맞지 않다"며 시민의견 수렴의 장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 정기명 지역위원장, 국립 5·18묘지 참배 첫 공식 일정 주철현 위원장·지방의원 등 50여 명 합동 참배



정기명 여수을지역위원장은 주철현 여수갑위원장과 함께 지난 2월 27일 임명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들을 추모했다. 정기명 지역위원장은 5·18 민주묘지를 찾아 추모탑에서

헌화·분향하고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전남 정치 일번지에서 참신한 정치를 일궈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참배에는 두 신임 신임 지역위원장 외에 최무경·최병용·강문성 도의원, 서완석 시의회 의장과 김승호·백인숙·민덕희·이미경·문갑태·전창권 시의원과 당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두 지역위원장은 이날 “광주에 오니 승리의 기운이 용솟음친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밑거름이 됐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여수을지역위, 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 규탄 성명

여수을지역위원회(위원장 정기명)는 지난달 17일 여수산단 대기업 오염물질 배출 조작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을지역위는 성명에서 “환경부 조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여수산단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성적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수을지역위는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일부 사업장의 폐쇄 등 고강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여수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중 단속권한이 있는 3~5종 사업장 9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대기오염 측정도 추진한다.





## 순천지역위-순천시 정책협의회 개최

### 주요 현안사업 국고지원 반영 등 협의...시청 대회의실(4.22)

순천지역위원회(위원장 서갑원)와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달 2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순천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 소속 도·시의원, 순천시 간부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0년도 국비 건의사업, 시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역발전에 대해 토론했다.

순천시는 이날 2020년 국비지원사업 보고를 통해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 울존제1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등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시 주요 사업예산

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 광역도시에서만 개최되던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순천 유치에 축하하고 '대한민국 대표 지방분권도시'로의 새로운 도시발전 계기를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허석 시장은 스카이큐브 손해배상

청구 건, 잡월드 운영비,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등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지역위원장은 "순천의 산적한 지역 현안 해소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국가균형발전박람회, 뽕순천방문의 해를 추진해 도시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서갑원 위원장, '순천방문의 해' 맞아 '낭만기차 여행'

### 특별 편성 무궁화호로 고향 방문(4.27)



제1회 내고향 순천 낭만기차  
일(토요일) 07:00~22:30  
장소 :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시아랫장

서갑원 순천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재경 순천향우회 회원들이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열차를 타고 고향 순천을 방문했다. <사진>

재경순천향우회(회장 최대규) 소속 회원 1천500여 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용산역에서 특별 편성한 무궁화호 2편을 이용해 순천으로 떠나는 '순천

낭만기차여행'을 실시했다.

회원들은 4시간 동안 추억의 기차 여행을 한 뒤 버스 편으로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이동해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고향의 온기가 있어 참 따뜻했다"며 "좋은 추억 여행을 마련해준 향우회 회장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확산 필요" ...사회적 가치 연속토론회

### 21일 신한대-정성호·백재현 의원 공동 주최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순천지역위원장)는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백재현 의원과 공동으로 '사회적 가치 연속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의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는 이용기 세종대 교수의 사회로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조

사관과 박재신 국민대학교 교수, 박봉용 기획재정부 과장, 양재형 한국가스공사 처장, 이종오 사회적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현 신한대 사회적가치추진단 교수가 참여했다.

서갑원 총장(순천지역위원장)은 "국정운영의 핵심 방향과 가치를 담은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와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나주·화순지역위, 나주시와 올해 첫 당정협의회 개최

### 내년 국비 확보 및 지역현안 대응 방안 토론...나주시청



나주·화순지역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지난달 17일 나주시와 올해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신정훈 위

원장과 강인규 시장, 김선용 시의회의장, 위광환 부시장을 비롯한 당 소속 시의원, 시청 국·소장 및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나주시는 협의회를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저장기술개발 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내년도 주요 국고지원 건의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원도심 및 빛가람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한전공대 설립 지원, 혁신

도시 시즌2, 죽산보 해체 제안에 따른 대응, 학교 과일간식제도 시행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신정훈 지역위원장은 이날 “한전공대 유치로 통해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 2의 기회를 크게 키워 나주가 호남의 중심도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지”고 밝혔다.

이어 “SRF 민관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휴무제, KTX 정차 횟수 확대, 초등학교 과일 간식 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협의회를 통해 당과 시, 지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장 위촉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지난달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장에 위촉됐다. <사진>

지역정책·공약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주 발족했다.

특위는 앞으로 전국 시·도의 지역관련 공약과 지역발전정책인 이른바 ‘혁

신도시 시즌2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공약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정책과 공약을 담당하다 보니 광주전남 현안사업인 한전공대 설립이나 혁신도시 시즌2 사업도 직접 담당하게 됐다”며 “광주전남 공약



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정훈 지역위원장, 어버이날 화순 나드리복지관 방문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화순 나드리복지관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신정훈 위원장과 구충곤 군수, 강순팔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당 소속 선출직 도·군의원들이 참석해 함께 어버이날을 축하드렸다.

신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주·화순지역위-화순군 당정협의회 화순군, 국가면역연구원 설립 등 15개 사업 국비 확보 지원 요청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화순군(군수 구충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신정훈 지역위원장, 구충곤 화순군수와 강순팔 군의회 의장, 문행주·구복규 도의원, 군의원, 군 실·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국가 면역치료 연구원 설립, XR(확장현실)기반 ICT융합형 활력노화 의료서비스 기술 개발,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 바이오 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15개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구충곤 군수는 “생물의약품, 의

료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며 “나주~화순~장흥을 잇는 생물의약품벨트를 화순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부처, 당과 협력해 여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제2생물의약품단지 조성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대선 공약사업이라도 준비가 잘 안 되면 그냥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일이 많다”며 “현안 사업을 더욱더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 광양·곡성·구례지역위 대의원대회 및 개편대회 총선승리 ‘다짐’

이용재 지역위원장 체제 출범...3. 30일 광양문화예회관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회(위원장 직대 이용재)가 지난 3월 30일 대의원 대회 및 개편대회를 열고 새롭게 출범의 뜻을 올렸다. <사진>

광양·곡성·구례지역위는 이날 오후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대의원·관리당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 및 개편대회를 열고 선출직 상

무위원·대의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한 뒤 내년 4·15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공연행사 등을 실시했다. 이날 대회에는 설 훈 최고위원과 서

삼석 도당위원장, 김영록 도지사, 이개호 농림부장관, 송영길 의원, 유승희 의원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참석해 이용재 지역위원장 체제의 출범을 뜨겁게 응원하는 축사를 실시했다.

또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30여 명의 도의원과 시·군 의원 6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총선 출정식장을 방불케 했다.

이용재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민주당 지킴이로서 3선 도의원과 도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온 경력을 살려 광양·곡성·구례의 자존심을 되찾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순천 매산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현재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 공동대표, 전남포럼 상임대표, 전남도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선열의 뜻 계승, 더 큰 대한민국 건설하자”...이용재 의장 함평 상해임시정부 재현 청사,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1일 함평 상해임시정부재현청사에서 개최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독립유공자와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횃불 안치와 임시정부수립 약사 보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 공모 수상작 낭송에 이어 희망나무 심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의장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고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과거에 나라를 찾던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고,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 이용재 의장,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안정적 지원을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건의문 채택(4.25)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이 상정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5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이용재 전남도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재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3차에 걸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명시해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개정과 연금보험료 지원을 100분의 80으로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 이개호 농림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의 “돼지열병 발생하면 최고 경보 발령해 강력히 대응”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장)이 당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강력히 대비하기로 했다. <사진>

농림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르고 예방백신이 없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당정의 협의 내용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하면 즉시 최고 경보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

되면 24시간 안에 발생 농가의 반경 500m 안에 있는 돼지의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전

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개호 장관은 “주요 감염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면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곡우사리 영광굴비축제 현장 방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영광 법성포에서 열린 넷곡우사리 영광굴비축제 현장을 방문하고 축제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이 장관은 법성을 찾은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금 바로 참조기가 알을 낳기 위해 칠산바다를 지나는데”라며 “곡우사리 알배기 굴비를 실컷 맛보시라”고 권했다.

‘곡우사리’란 ‘곡우’라는 절기에 잡힌 굴비를 뜻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 수산물 브랜드 영광굴비를 즐길 수 있는 곡우사리 축제는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이 윤택해지는 곡우에 산란 직전의 맛좋은 조기를 맛볼 수 있다.



이 때 잡힌 조기를 천일염에 절여 해풍과 햇빛에 꾸둑꾸둑하게 말리면

최상급으로 치는 굴비인 곡우사리가 된다.

## 이개호 장관, 장성군농업 경영인대회 참석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장성공설운동장에 열린 제32회 장성군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한농연의 성원으로 쌀값 회복 등 농업·농촌을 대변한 뚜렷한 주장과 요구를 관철시켜왔는데 앞으로도 농민을 위한 일이라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장관이자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개호 장관, G20 농업장관 회의서 한국 스마트팜 소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장)은 11~12일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린 G20 농업 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G20 농업장관회의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농식품 분

야 국제 협력을 촉구하고자 2017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다.

이번 회의에서 G20 농업 장관들은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와 모범 사례’를 의제로 농업 분야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한국의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 육성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촌 지역 고령화를 극복하고 농업·농촌 분야 혁신을 달성할 방안으로 역량 있는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고 신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소개했다.

## 김승남 지역위원장, 보성지역 핵심당원 교육 및 임명장 수여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오후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19 보성 핵심당원 교육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교육에서는 서울대 이기원(농생명과학부)교수를 초청, '4차산업혁명과 농·어촌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실시됐다.

이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가 통합돼 농어업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대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기술적인 이해와 함께 리더로서 변화

를 맞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보성지역 핵심당원 700여명에 대해 당직 임명장을 수여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결의하였다.

김승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와 고령화를 동시에 맞은 우리 농·어촌은 지역의 리더들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며 "당원들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김승남 지역위원장, 장흥민주산악회 역불산 정기산행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장흥군 장흥읍 역불산에서 장흥민주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정기 산행을 실시했다. 이날 산행에 앞서 김승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본인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발로 차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고 "선거제와 검찰개혁이 두려운 나머지 국민을 속이는 선동정치를 벌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산행에는 선출직 공직자와 당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김승남 지역위원장, 고흥 녹동 비둘기로타리클럽 경로잔치 참석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고흥군 도양읍 녹동 비둘기로타리클럽 경로 위안잔치에 참석,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어 도화면 발포리에서 열린

경로 위안잔치에 들러 인사를 올리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한편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승남 지역위원장, '해양오염 실태 및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위원장 김승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고흥 도양읍민회관에서 당원 및 지역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오염 실태 및 해결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기 고흥군의회 부의장의 사회로 노일상 전남도청 해양보전팀장,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장의 기초발제와 김재승 장흥군의원, 김창주 강진군의원, 장동범 해양수산신지직인, 최상복 한국수산경영인 고흥군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남해안의 해양쓰레기 증가로 인해 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고갈, 선박운항 장애, 관광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사후 수거보다는 재활용 자원화촉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사전 예방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는 토론회에 앞서 5.18 왜곡 및 망언사태에 대해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자유한국당의 사죄와 관련자들의 사법처벌을 촉구했다.



# “잊지 않겠습니다...”

## 윤재갑 지역위원장, ‘세월호 참사 5주기 팽목항 추모제’참석

‘왜 팽목항을 기억해야 하는가’ 토론회 등 다양한 추모행사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내가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15일 오후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제’에 참석, 304명의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사진>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추진위원회’주최로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과 추모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 행사에 이어 ‘다시, 4월’을 주제로 15일과 16일 이틀간 열린 5주기 추모제는 문화행사 외에도 ‘우리는 왜 팽목항을 기억해야 하는가’란 주제의 토론회, ‘팽목바람길 걷기 행사’등이 이어졌다.

또 청소년 체험 마당, 추모극 ‘세월을 씻어라’, 학생마당, 추모의식과 예술마당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책임소재는 아직도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처벌도 완결

되지 못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사고원인에 대

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재갑 지역위원장, 해남 송지 경로위안잔치 참석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은 지난 9일 해남군 송지면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경로위안잔치 및 체육대회에 참석, 어르신들과 지역민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영·김성일 도

의원과 이순이 해남군의회 의장, 김병덕 부의장, 김종숙·박상정·이성욱·민경매 군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윤재갑 지역위원장, 대한민국 대표 바다축제 ‘장보고수산물축제’ 성공개최 기원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3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바다축제인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막식과 부대행사인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축제의 성공개최와 군민 화합을 기원했다. <사진>

‘2019 장보고수산물축제’는 ‘보고, 먹고, 체험하는 행복한 완도 여행’이란 주제로 3일부터 6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윤 위원장은 개막식에서 “장보고 대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새로운 프로

그램을 개발해 선보인 수산물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하루 따뜻한 정 나누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축제는 역대 최대 인파인 8만 명이 몰리는 대성황을 이루고 막을 내렸다.

축제 기간 신지명사심리해수욕장 2만5천명, 보길·소안도는 1만9천명, 청산도 1만7천명 등 완도를 찾은 관광객은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p><b>3</b> 차례 <b>36</b> 차례</p> <p>11년만의 정상회담 3차례, 고위급 등 총 36번 남북회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p>	<p><b>8</b> 개 종목</p> <p>탁구, 유도, 핸드볼, 농구 등 8개 종목 남북단일팀 구성</p>	<p>2018 남북 간 7,498명 왕래 (방남 809, 방북 6,689)</p> <p><b>7,498</b> 명</p>
<p><b>2020</b>년 남북단일팀 구성</p> <p><b>2032</b>년 남북 올림픽 공동 대회 추진</p>	<p>금강산 상봉 2회 남북 가족의 만남</p> <p>170가족 <b>833</b>명</p>	<p><b>2,600</b> km</p> <p>18일간 북측 철도 공동조사 하이브리드 철도·도로 공동조사 연결 착공식('18.12월) 등</p> <p>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p>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굿즈

**문재인 대통령 스노우볼 발매**

**한정 판매**

**5월 13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공식홈페이지에서 오픈!